



한국 1세대 아트 디렉터 서기훈 Oh My Dog, Oh My God

‘개’를 주제로 사람의 본성과 삶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온 서기훈 아트 디렉터가 장충동 디자인하우스 사옥 1층 디자인갤러리 모이소에서 7월 31일부터 한 달 간 전시를 연다. 지난 15여 년간 개와 인간, 세상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다채로운 예술 작품과 디자인, 텍스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체코의 대문호 프란츠 카프카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질문, 대답의 총체가 한 마리 개 안에 있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는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은 개지기 마련이다. 진정으로 충실한 개의 믿음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말을 남겼다. 오래전부터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다. 수많은 문학, 소설, 격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듯 사람들은 개를 통해 위로를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개를 비유해 누군가를 욕하거나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식의 말로 삶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 디자인계의 1세대 아트 디렉터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2000여 권의 책을 디자인했고 40여 년간 대학과 현장에서 선구적 디자인을 실천한 서기훈은 개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한다. 약 15년 전 경원대학교에서 통합 교육 프로그램 ‘디자인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개 프로젝트’를 펼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개’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디자인문화운동은 디자인과 예술, 이미지와 텍스트, 학교와 현장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기획부터 작업, 실행, 협업, 출판, 전시까지 하나의 주제를 1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 나가는 마라톤 같은 과제였죠. 때문에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했는데, 다양한 조형적 실험과 인문적 탐구가 가능해야 했고 사회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텍스트 등 아웃풋을 통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했어요. ‘숫대’, ‘인간’을 주제로 앞선 두 번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터라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문득 당시 운영하던 그래픽디자인 회사 아이앤아이(I&I) 사옥 마당에서 키우던 개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주말 아침 아무도 없는 회사에 나갈 때면 제가 밥을 챙기고 똥도 치워주곤 했는데, 꼬리를 흔들며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개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관계’와 ‘삶’에 대한 여러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순간 ‘개를 주제로 삼아볼까?’ 싶었고 이후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고민해 수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냈죠. 그만큼 개라는 생명체에는 인간과 함께한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서기훈 한국 출판 디자인계의 1세대 아트 디렉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출판사와 잡지사에서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로서 경력을 쌓았다. 1988년 경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부임한 후 2018년 가천대학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30여 년을 강단에 서며 디자인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 한편으로는 1991년 그래픽디자인 회사 아이앤아이를 설립해 제일기획, 조선일보, 디자인하우스 등 수많은 기업과 협업하며 각종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조정래 <아리랑>, 신경숙 <외딴방> 등 2000여 권이 넘는 단행본을 디자인했으며, 2004년 ‘디자인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펼친 ‘개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금까지 개를 통해 인간과 삶을 사유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주제 선정은 성공적이었다. 학생과 선생 할 것 없이 즐겁게 프로젝트에 매진했고, 흥미로운 결과물이 쏟아져 나왔다. 1년간의 작업을 모아 이듬해인 2005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연 전시 <세상을 향해 짓는 즐거운 상상-DOG·GOD>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다.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기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깝게 지낸 개를 통해 인간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돌아보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어요. 지필묵 드로잉을 비롯해 도자 조형, 페인팅, 일러스트레이션, 텍스트 등 1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총망라했죠. 전시 기간이 열흘 정도였는데, 미술관 개관 이래 최대 관객 수를 기록했어요. 지방대학 디자인학과에서는 버스를 대절해 전시를 보러 오기도 했죠. 그때 개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앞으로 꾸준히 사랑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1



2



3



4



5

개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 상품을 선보이는 ‘개 뮤지엄’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개관’이 된 세상, ‘개’를 통해 회복하다

“‘개dog’를 반대로 쓰면 ‘신god’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뒤집으면 서로 같아지는 놀랍고 흥미로운 단어지요. 이걸 발견하고는 ‘인간과 오랫동안 가장 친밀한 동물로 지낸 개의 특별한 재능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최고god’와 ‘최악dog’의 모순이 공존하고 융합되어 최악마저 환호하게 만드는 신비와 기적, 혹은 ‘화합’의 의미가 깃들여 있다고 여겨졌죠.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역설의 지혜’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기훈 아트 디렉터가 강조한 ‘역설’이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질서이자 세상의 이치다. “40여 년간 학교와 현장, 양쪽 모두에 두 발을 디딘 채 선생이자 디자이너로서 치열하게 살면서 언제나 놓치지 않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민의 끝에 ‘역설’을 떠올리게 되었지요. 생각해보면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모두 극과 극, 상반되는 것들로 구성돼 있어요. 음과 양, 남과 여, 선과 악, 아날로그와 디지털, 예술과 디자인, 진보와 보수 등 반대되는 것이 한 쌍을 이루며 서로 견제하고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면서 제 역할을 하고 있죠. 결국 ‘저 너머의 것’, ‘반대편의 것’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훨씬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라고 디자인에만 몰두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글도 쓰고 기획도 하는 식으로 ‘너머’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훨씬 크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쏟아낼 수 있죠. 학교에서 늘 ‘디자인은 디자인 바깥에 있다’는 명제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도그-갓dog-god’이 내포한 역설을 통해 ‘개관이 된 세상, 인간다움을 회복할 실마리와 지혜를 개로부터 찾는다’는 통찰을 발견한 그는 다양한 콘텐츠로 개와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개를 통해 얻은 사유를 3차 6행 형식의 시로 함축하고 자신의 글과 개에 관한 명언을 모아 <오 마이 독, 오 마이 갓>이라는 책으로 출간했고, 2015년 서울시청 시민청과 2016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10년 넘게 축적한 관련 콘텐츠를 집대성한 <DOG-GOD> 전시를 열기도 했다. 해외 방문 때마다 하나둘 수집한 개 작품과 소품 등은 수십 개의 박스에 담긴 채 작업실을 가득 채우고 있고, 지필묵 드로잉을 비롯한 제작들의 각종 프로젝트 결과물, 수많은 디자이너, 아티스트와 협업한 작품은 셀 수도 없

을 정도다. “언젠가 개 뮤지엄을 열 생각으로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입니다. 세계적인 공감대의 주제이다 보니 컬렉션도 방대해졌어요. 작품이 이렇게 많은 데도 하나하나 모두 다른 삶에 대한 통찰과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죠. ‘뮤지엄’으로 명명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미술관과 박물관이 하는 두 역할을 하나로 합친 공간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수집형 콘텐츠, 나열식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에게 말을 걸고 즐거운 감각을 전하는, ‘살맛 나는 세상’에 기여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8월 디자인갤러리 모이소에서 여는 전시에서는 ‘뮤지엄 오브 도그 아트Museum of Dog Art’의 초석을 다지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기존 전시에서 이미지 위주의 작품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서기훈 아트 디렉터가 직접 쓰거나 수집해온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

1, 4 서기훈 아트 디렉터의 청평 작업실에 가득한 개에 관한 작품들. 2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제작자들이 작업한 지필묵 드로잉. 개의 다채로운 표정이 인상 깊다. 3 디자인갤러리 모이소 전시를 준비하며 남긴 전시장 스케치. 5 서기훈 아트 디렉터의 청평 작업실 전경. 15년간 ‘개’를 주제로 이어온 사유의 결과물이 가득하다.

화를 통해 ‘dog-god’이 함축한 인생 철학을 아름다우면서도 효과적인 형태로 선보인다는 포부다. “반려견 1000만 시대입니다. 그저 ‘귀여워서’, ‘오래 함께해왔기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개를 평생의 동반자로 삼을까요? 저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동물과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통해 느끼고, 배우고, 성찰하고, 힐링하고, 앞으로 더 즐거운 삶을 살게 해줄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도그-갓’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 글 김수진 기자 | 사진 김규한 기자

<나는 누구개> 지난 15년간 ‘개’에 주목해 사람의 본성과 삶의 본질을 사유해온 서기훈 아트 디렉터가 서울 장충동 디자인하우스 사옥 1층에 위치한 디자인갤러리 모이소에서 전시를 연다. 개를 주제로 제작들과 함께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지필묵 드로잉, 도자 조형, 영상, 텍스트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개관’이 펼쳐진다.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